

##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사망! 어패류 익혀먹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

- 응급실 입원 치료 중 사망한 70대 여성이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진
- 어패류 익혀 먹기, 바닷물 접촉 주의(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) 등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
- 간 질환자,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어패류 익혀먹기 등 각별한 주의 필요
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은 5월 20일(월)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.

이번 확진자는 70대 여성\*으로 5월 14일 다리 부종·통증 및 색 변화가 나타나 응급실에서 입원 치료 중 5월 16일 심정지로 사망하였고, 검체 검사 결과 5월 20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되었다.

\* C형 간염·고혈압·뇌경색 기저질환자이며,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섭취력 등 조사 중

비브리오패혈균은 해수온도가 18℃ 이상일 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호염성 세균으로 주로 해수, 해하수, 갯벌,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 해양 환경에서 자유롭게 서식한다.

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5~6월경에 발생하기 시작하여, 8~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, 2023년의 경우 비브리오패혈증 환자의 91.3%가 8~10월에 발생하였다.

< 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추이(2019-2023) >



< 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 발생 추이(2019-2023) >



비브리오패혈증의 주요 감염경로는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은 경우,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한 경우로 알려져 있어,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숙지하여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.

### <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>

-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.
-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.
-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.

- ◇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.
- ◇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한다.
  - \*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동안 더 끓이고,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이상 더 요리해야 함
- ◇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.
- ◇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,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.
- ◇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.

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,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에 다리 쪽에 발진, 부종, 수포(출혈성) 등의 피부병변이 생기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.

특히, 만성 간 질환자, 당뇨병, 알콜의존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브리오패혈증의 감염 및 사망위험이 높아\*,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.

\* '23년 기저질환 보유자는 확진환자(68명) 중 77.9%, 사망자(27명) 중 92.6% 차지  
(출처: 질병관리청 '주간 건강과질병' 2024, Vol. 17)

**<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>**

간 질환자,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, 알코올의존자,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, 악성종양, 재생불량성 빈혈, 백혈병 환자, 장기이식환자, 면역결핍 환자

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“비브리오패혈증은 사람 간 전파는 없으므로, 어패류, 계, 새우 등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, 특히 만성 간질환자, 당뇨병, 알콜의존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- <붙임> 1. 비브리오패혈증 개요  
2.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통계  
3. 질의응답  
4. 비브리오패혈증 카드뉴스

담당 부서	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	책임자	과 장	양진선 (043-719-7140)
		담당자	연구관	박소연 (043-719-7141)
		담당자	연구사	김형준 (043-719-7152)
		담당자	역학조사관	황명재 (043-719-7153)



# 붙임 1

## 비브리오패혈증 개요

구 분	내 용
정 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브리오 패혈균(<i>Vibrio vulnificus</i>)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</li> </ul>
질병 분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정감염병: 제3급</li> <li>질병코드: ICD-10 A05.5</li> </ul>
병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>Vibrio vulnificus</i></li> <li>- <i>Vibrionaceae</i>과에 속하는 그람 음성 막대균</li> <li>- 3가지 생물형이 알려져 있으며, 우리나라에서는 1형이 발견</li> </ul>
병원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수, 갯벌, 어패류, 사람은 주로 기회 감염됨</li> </ul>
전파 경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</li> <li>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</li> </ul>
잠복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2시간 ~72시간</li> </ul>
증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, 1/3은 저혈압이 동반</li> <li>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생기고, 주로 하지에 발생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피부병변은 발진,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,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</li> </ul> </li> </ul>
진 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검체(혈액, 대변, 소변, 직장도말, 구토물, 수포액, 피부병변, 조직)에서 <i>V. vulnificus</i> 분리 동정</li> </ul>
치 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병변절제 : 괴사조직 제거 및 근막절개술</li> <li>항생제 치료 : 3세대 세팔로스포린, 플루오로퀴놀론,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로 즉각 치료</li> </ul>
전염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람 간 전파는 없음</li> </ul>
치사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0%내 외</li> </ul>
관 리	<p>&lt;환자 관리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환자 격리는 불필요</li> </ul>
	<p>&lt;접촉자 관리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접촉자 관리 : 불필요</li> <li>환자와 의심 감염원에 함께 노출된 경우 접촉자 발병 여부 관찰</li> </ul>
예 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반적 예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(특히, 고위험군 환자)</li> <li>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, 바닷물에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</li> </ul> </li> </ul>

□ **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(2019~2023)**

(단위 : 명)

연도 \ 월	발생건수 (사망자수)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'23년	69(27)	0	0	0	0	0	2(1)	4(4)	16(4)	26(10)	21(8)	0	0
'22년	46(18)	1	0	0	1	0	1	1(2)	17(6)	17(6)	7(4)	1	0
'21년	52(22)	0	0	0	1	0	3	4	13(6)	18(12)	9(4)	2	1
'20년	70(25)	1	0	0	0	2(1)	2(1)	9(4)	26(7)	22(9)	6(2)	1	1
'19년	42(14)	0	0	0	0	0	1	2	14(7)	14(5)	5(1)	6(1)	0

\* 2022년은 잠정통계로 변동가능

□ **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현황(2019~2023)**

(단위 : 명, %)

	계	2019	2020	2021	2022	2023
계	279 (100)	42 (100)	70 (100)	52 (100)	46 (100)	69 (100)
성별						
남	214 (76.7)	32 (76.2)	52 (74.3)	44 (84.6)	34 (73.9)	52 (75.4)
여	65 (23.3)	10 (23.8)	18 (25.7)	8 (15.4)	12 (26.1)	17 (24.6)
연령						
50대이하	34 (12.2)	8 (19.0)	7 (10.0)	6 (11.5)	7 (15.2)	6 (8.7)
50대	79 (28.3)	18 (42.9)	17 (24.3)	16 (30.8)	11 (23.9)	17 (24.6)
60대	81 (29.0)	8 (19.0)	19 (27.1)	13 (25.0)	20 (43.5)	21 (30.4)
70대이상	85 (30.5)	8 (19.0)	27 (38.6)	17 (32.7)	8 (17.4)	25 (36.3)
기저질환*						
유**	216 (77.4)	36 (87.8)	57 (81.4)	39 (79.6)	36 (78.3)	48 (69.6)
무	47 (16.8)	5 (12.2)	12 (17.1)	8 (16.3)	8 (17.4)	14 (20.3)
미응답	12 (4.3)	-	1 (1.4)	2 (4.1)	2 (4.3)	7 (10.1)

\* 추가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, 2019년 1명, 2021년 3명 미실시로 제외됨

\*\* 간질환, 고혈압, 당뇨병 만성질환 등 포함

**1. 비브리오패혈증은 무엇인가요?**

- 비브리오 패혈균(*Vibrio vulnificus*)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감염증입니다.

**2.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시 증상은 무엇인가요?**

- 급성 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.
  -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, 병변의 모양은 발진,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,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합니다.

**3. 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?**

-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,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.

**4.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?**

-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,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야 합니다. 특히, 고위험군(간질환자(만성 간염, 간경화, 간암), 당뇨병 환자, 알코올 의존자, 면역저하 환자 등)은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℃ 이하로 저온 저장, 85℃ 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. 또한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,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합니다.

**5. 비브리오패혈증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?**

- 적절한 항생제 복용을 통해 치료하고,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상처치료를 병행합니다.

